재테크 첫걸음 – 종자돈의 중요성

외환은행 영업부WM센터 PB팀장 | 김 범 석

산야의 신록이 초록의 물결을 더해가는 5월, 계절의 여왕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게 다양한 꽃들이 앞을 다퉈 자태를 뽐내고 있고 화창한 날씨와 함께 라일락과 아카시아 꽃의 진한 향기가 사람의 기분을 한층 들뜨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직장인들에게 있어 5월은 아마도 일년중 가장 괴로운 달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결혼기념일 등의 각종 행사일이 연달아 이어지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랑스러운 아빠, 부끄럽지 않은 가장이 되기 위해서 지출해야 할 추가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갑자기 소득이 증가하는 것도 아닌데 쌓여가는 신용카드 영수증의 결제를 생각하면 저절로 한숨이 나올수 밖에 없는 잔인한 계절인 것이다. 이럴때 누구나 한번쯤 내가 부자였으면 생각해보지 않았을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누구나 부자가 되어 경제적인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꿈꾸지만, 실제로 이를 이루어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게 현실이다. 얼마전 모 일간지에서 우리나라 부자들의 부의 형성에 대한 국민의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실었는데,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자는 자신의 노력보다는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된 사람'이라는 문항에 동의한다는 비율이 무려 77%였으며, '부자들은 대부분 열심히 일한 결과 돈을 모은 사람'이라는 문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부자들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 반면 한편으로 매달 받는 일정한 소득을 성실히 모아서 부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반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고 무조건 부자가 되는 꿈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일까?

감히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는 옛말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의 경제적 자유를 누릴수 있는 의미로서 부자는 스스로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자본주의 체제의 제반 사회현상에서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대원칙은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효율성의 법칙일 것이다. 즉 최소의 비용을 투자해서 최대의 효과를 올려야 한다는 것인데, 직장인들의 재테크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원칙에서 벗어날수는 없을 것이다.

많은 기회를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 한,두번의 실패는 별 대수로운 일이 아니겠지만 가진 기회 자체가 적은 사람들에게 있어 자칫 한번의 실패는 모든 것을 결정할수도 있기에 보다 신중해져야 하며 그런 원칙들을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일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재테크에서도 역시 왕도(Royal Road)란 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이겠지만, 얼마나 이를 믿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일련의 재테크 과정 모두를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종자돈 마련에 대한 그 중요성과 이를 실천하기 위해 알고 있어야 할 항목들을 살펴 보고자 한다.

재테크라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부채, 그리고 얻을수 있는 금전적인 소득을 유효 적절하게 활용하여 궁극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즉 부자가 되기위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가장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매월의 소득을 꾸준히 모아

서 본인이 생각하는 부자라고 할 수 있는 목표금액에 이를때까지 모으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두가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첫번째는 부자라고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액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와 향후의 예상소득을 계속적으로 모아간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목표금액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이다.

두번째는 화폐의 시간적 가치(Time Value)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세상의 모든 만물은 조금씩 그 모습이 변해가는데, 무형물인 화폐의 가치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물가상승율과 이자율의 개념이 등장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선 차후에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처음 목표로 했던 금액이나 매월의 소득금액도 계속 변동을 하게되는데, 이러한 금액들간에 적용되는 상승율이 동일하지 않게 되어 서로간의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그 과정에서의 활용 방법에 따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결과는 차이가 커질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최근 사례를 보더라도 동일한 물가상승율 하에서 시간가치라고 할 수 있는 자산의 증가금액이 일반예금과 펀드, 주식과 부동산 간 차이가 현격하였음을 알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종자돈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대두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첫번째 문제인 본인의 향후 예상소득 적립만으로 목표금액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빠른 시간안에 일정금액의 종자돈을 마련하여 이의 증식을 통한 부족분을 보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때 유행했던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보면 저자는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을 간파하고 내가 쉬고 있을 때에도 나 대신 돈을 벌어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종자돈의 빠른 마련만이 이런 기회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두번째로 일정 규모의 종자돈이 마련되어야 자산간의 증가 속도 차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매월 일정금액을 정기적금 방식으로 적립만해 간다면 은행예금 이자 이상을 기대할 수 없으나, 종자돈이 마련되어 있다면 주식이 오를때에는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서 부동산 활황기에는 자본이득과 임대소득으로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

즉, 종자돈의 준비 여부와 이를 활용한 성과의 높고 낮음에 따라 본인이 설정한 재무목표의 달성 가능성 여부와 그 시기의 단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럼 재테크에 있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자돈 마련에 대한 필요성은 누구나가 공감하고 있지만,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 미래 재무목표 및 최소 종자돈 목표 설정

어떠한 일을 계획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목표를 분명히 명시하는 것인데, 금전과 관련된 재무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선 무엇보다 금액과 시기의 수치를 구체화하고 목표 자체를 실천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

자칫 지나치게 의욕만 앞서 허황된 수준의 목표를 정한다면 장기간 동안 꾸준히 행해져야 할 재테크 활동 자체가 시작도 하기전에 포기해 버리는 결과가 생길지도 모른다.

또한 본인의 수준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최소한의 종자돈 금액을 미리 정하여 최우선적으로 이의 달성에 전념하여야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 경제생활의 현주소 파악(재무상태표)과 지출내역 점검

달성하여야 할 재무목표를 정하고 나면 현재 자신의 경제활동 전반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의 현황이 적정한지 불필요한 자산과 불요불급한 채무는 없는지 최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중심으로 한 수지상황표를 작성하여 가계의 재무활동 건전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지출내역의 점검인데 세금이나 관리비 등의 고정비와 외식비, 생활비 등의 변동비로 구성되어지는 통상의 가계지출 중 무엇보다 변동비 부분의 관리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계의 소득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스스로 의사로 조절이 어려운 반면 지출은 의지만 있다면 특히 변동비 위주로 조절이 충분히 가능하다.

■ 눈감고 저축 먼저, 소비는 나중에…

앞서 말한것처럼 소득을 쉽게 증가시킬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가계 지출의 적절한 관리활동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결코 종자돈 마련의 꿈을 이룰수가 없다.

그런데 말처럼 소비를 줄인다는게 여간 어렵지 않다. 사람들 누구나 현재의 생활을 편안하게 즐기길 원하지 어렵고 힘들게 사는걸 희망하지는 않는다. 거기다 집값을 비롯한 각종 물가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핵가족 시대 한,두명의

자녀를 위한 사교육비 부담도 증가를 하고 있어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당위성은 인식을 하면서도 막상 실제 생활에서는 그러지 못하는 게 대다수 가계의 현실일 것이다.

그럼으로 정말 모진 결심으로 무조건 소득의 일정비율을 정하여 우선적으로 저축을 하고, 남는 금액에 맞춰 소비를 하는 습관을 조기에 들일 필요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에게는 월 급여의 일정부분은 자동대체 등으로 저축을 하고, 부족한 생활비는 상여금 등으로 충당하는 것을 권해 드리고 싶다.

■ 작은것을 농치지 말자 (세테크, 소득공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연체 등)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지만, 모으는 데에도 순서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즉, 같은 이자를 받고도 세금의 차이로 인해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달라지거나, 조금만 생각해서 선택을 한다면 예금이자도 받으면서 소득공제의 혜택을 같이 누릴수 있는 일거양득의 상품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처음 시작할때는 아주 사소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기간이 늘어나거나 금액이 쌓인다면 그 차이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일생동안 계속되어야 할 재테크 활동에 있어 무엇보다 소중한 기본자세를 형성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종자돈 마련을 위한 저축에서도 먼저 비과세 등의 세제상 혜택과 연말정산시의 공제 여부, 그리고 복리적용 가능성 및 기타 서비스 여부 등을 자세히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신용카드의 편리성을 활용하는 것은 좋으나 당장 눈에 보이는 지출이 생기지 않는것으로 착각하여 무계획적인 지출을 하거나 현금서비스 사용이나 연체 등을 발생시켜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 은행과 친해져라 (도움받을 전문가를 만들어라)

세상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금융시장은 그 변화의 속도가 더욱 빠른 편이다. 어젯밤 미국시장의 변화에 따라 전세계 주식과 환율시장이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그야말로 지구촌 현장이다. 특히나 2009년 자본시장 통합법이 시행되면 지금보다 훨씬 복잡하고 생소한 금융상품들이 생겨날 것이고 그때는 정말 몰라서 손해보는 경우가 생겨날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상품들을 스스로 알아서 살펴보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것이며 더군다나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어져야 하는 재테크 활동임을 감안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금융 전문가의 필요성은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 먼저 주거래 은행을 정해 거래를 일원화해야 한다.

그리고 은행 방문하는 것을 기피하지 말고, 일부러라도 방문하여 최근의 상품들이나 증시 현황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모르는 것들은 확인을 해두어야 하며 관리직원과의 친분을 쌓아가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 무작정 모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부채도 자산)

종자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일정금액을 모아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지만, 모으는 데에도 순서와 방법이 있고 또 무조건 목표한 금액이 될때까지 계속 저축만 해나가는 것이 능사가 아닐수도 있다. 왜냐하면 화폐라는 것을 사용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가상승은 피할수 없는 현상인데 중요한 것은 자산의 종류별로 그 상승 가치의 차이가 생길수 밖에 없음을 앞서 설명한 바가 있다.

물론 목돈을 만들기 위해 이용하는 금융상품 등의 상승율이 더 높다면 문제는 없지만, 요즘과 같은 저금리시대에는 자칫 가만히 앉아서 기회이익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생길수도 있는 것이다. 쉬운 예를 들어 은행에서 빌려쓰는 대출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수 있는 상품이 있다면 별다른 위험없이도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자율이라는 것은 위험에 대한 대가이기에 이론적으로야 이런 현상이 생길수 없지만 다양한 정책변수가 존재하는 현실경제에선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일수 없으며, 지난 수년동안의 경험에 의해 알듯이 금리는 떨어지고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던 시기에는 묵묵히 저축만을 했던 사람보다는 적절한 부채의 활용을 하였던 쪽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리스크 이해는 필수, 경제관련 뉴스는 상식이다.

무조건 모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적절한 부채의 활용이 때로는 훨씬 효과적일수 있지만 문제는 그러기 위해서 리스크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하고 있어야 한다.

아무런 리스크가 없는 무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수익율은 국채이자 수준밖에 되지 않을 것이며,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을 높게 가져간다면 반대로 그에 대한 원금 보존 여부에 대한 위험도 그만큼 커질수 밖에 없음을 이해해야 한다.

결국 위험과 이자율은 상반관계에 있으며, 어느 수준에서 그 위험과 기대이익을 절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경제전반에 대한 현상과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고 그 지식의 기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막연히 복잡하다거나 흥미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외면하는 것은 성공적인 재테크를 미리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 종자돈 모으기는 마침표가 없다.

종자돈 모으기는 한번으로 끝이나는 일회성 활동이 되어서는 안된다.

일단 목표로 한 종자돈이 마련되면 일시에 목돈이 들어가야 되는 금융상품이나 자산에 투자를 하고, 또다시 새로운 목표로 종자돈 마련 계획을 세워 또 투자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자산을 늘려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종자돈 모으기는 일련의 재테크 과정에서 가장 첫번째이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단계일수 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빠른 시간안에 종자돈 모으기에 성공을 한다면 이는 앞으로의 재테크에 훌륭한 기초공사를 완성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첫단계에서 부터의 실패로 이후의 다른 과정을 계획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되는 목돈 만들기의 과정에서 같은 실패를 반복하며 시간만을 보낼 공산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한다.

생각만 있고 행동을 하지 못한다면 그 또한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을 것이다.

특히 재테크에 있어 특별한 비법은 없다.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알고 너무나 대수롭지 않은 사소한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행동으로 옮겨 실천하느냐 아니면 머리속으로만 일확천금을 꿈꾸느냐의 차이는 지금은 비록 미미하겠지만 5년, 10년뒤에는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스케줄로 가득찬 가정의 달 5월, 얇아지는 지갑에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 마시고 있는 커피 한잔과 담배 한갑의 행복을 조금 줄이더라도 적립식 펀드 가입으로 종자돈 마련의 첫걸음을 내딛어 보는것은 어떨까?